

목장모임, 주일학교

프리토리아	김장원 문현진	유창환 함은정 손은미
베를린	조혜정 김영관	정영 박애희 정경화
울란바토르	이중혁 양새롬	정광 이윤경 전민교 양경모 안제호 김지인 이정후 정다운
퍼스	권영준 유나윤	다윗부
땅 끝까지	김현수 강아란	윤혜윤 박용수 문선희 조현선
발리	양순모 서은비	김은재 장해청 신상민
나짱	권오윤 김인지	김석원 이수민 김동규 김희진
우름치		양승구 김혜랑 이옥희 김종범 김연숙
주일학교	다윗	박소울 김지아 주송현 신지호 김재인 주송하
	믿음	김서울 박지웅 김성준 김수겸 김태인 신유나 박지훈 정시우 정시연 박도겸 김서아 유지안 박지민 김수호 유니아
	소망	양희건 유시우 김은호 김해인 정이진 양하은 이강 김민호 김리아 이지윤

교회 주소

우)13503, 별말로 40번길 3 성산빌딩 4층
(옛주소 : 야탑3동 272-4 성산빌딩 4층)

교회 관련 링크



교회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오시는 길
(네이버지도)

모임 안내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2부	오전 11시	올리브탕
	소망부	오전 11시	본당
	믿음부	오전 11시	본당
	다윗부	오전 11시	본당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승관
사역위원 김장원 권영준
대표전화 / 070 - 4409 - 8291

협력 선교사/교회/단체

지역	협력 선교사/교회
프리토리아	김보근 선교사
베를린	박희명 선교사
울란바토르	K 선교사
퍼스	변성모 목사
땅 끝까지	이강욱 선교사
나짱	K 선교사
발리	최문식 선교사
우름치	L 선교사

헌금안내

신한은행 100-025-549240
예금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담교회

주일예배순서

- ★ 일어설 수 있는 분은 같이 일어서주세요 인도 : 김승관 목사
- 찬양 찬양팀
- 환영과 광고
- ★ 입례찬송 다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 ★ 사도신경 다같이
- 봉헌찬송 다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통415)
- 공기도 1부: 권오윤 집사, 2부: 김장원 집사
- 성경봉독 인도자 로마서 3장 9-20절
- 말씀선포 김승관 목사 뉘새가 말한다 구원은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확인된다
- ★ 찬양과 헌신 다같이 축복의 사람
- 축복 기도 설교자

목장예배순서

- 애찬 다같이
- 올리브블레싱 다같이
- 찬양 인도 / 찬양부장
- 광고 목사 (지난 주보 목회칼럼을 읽어 주세요)
- 성경공부 인도 / 목장교사
- 나눔 다같이 (감사 나눔을 먼저 하세요)
- 중보기도 인도 / 목자
- 선교와 전도 인도 / 목자 (선교사님과 VIP 를 위해 기도하세요)

2026년 06월 14일
/제 19권 24호

영원을 향해가는 유목민

예담교회
SINCE 2008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설교요약

/결단과 헌신

일정안내

수요기도모임

06.17 김장원
06.24 권영준

식사 준비

06.21 프리토리아·퍼스
06.28 프리토리아·퍼스

주요 교회행사

06.20 다윗부 행아웃

예배당 청소

06.21 프리토리아·퍼스
06.28 프리토리아·퍼스

예배기도

06.21 김인지 양순모
06.28 문선희 유창환

지난 주 현황

헌금

실일조	2,100,000	작정헌금	1,060,000
주일헌금	290,000	기타헌금	226,000
주일학교 헌금	34,000	선교헌금	170,000
감사헌금	360,000	건축헌금	80,000
목적헌금	200,000	성찬헌금	180,000

감사의 제목

- 이사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 아이들에게 복음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진이의 심장을 1년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장모임에 VIP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별 VIP 명단

목장	VIP 명단
프리토리아	유현철 김현아 김지혜 문기식 송가희
베를린	김수진 이혜림 이혜주
울란바토르	박주혁 한준호 박수진 김완영 최재광 강성은 김성호 황정준
퍼스	이승주 정보민 김성원 김장운 신은영 최민영
땅 끝까지	안태홍 박상현 김현석 조희태 배민경 문미선 이OO
나짱	이진아 이세라 민지은 김소혜 진서울
발리	우경민 전지훈 장안기(홍콩) 하이(베트남) 심현섭

교회소식

<1만시간 기도운동 누적시간: 730시간 11분>

1. 오늘 점심식사 후 유아실에서 총목자모임 있습니다.
2. 다윗부 행아웃 20일(토)에 있습니다.
3. 목사님 일정: 목요일(18일) 가정교회 야탑지역 모임

목회칼럼

목사도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에 품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 VIP로 처음 오신 분도, 오래 함께한 지체도 —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늘 안고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지난 주일, 김인기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디가 깊이 박혔습니다.

"목사는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반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당신이나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해야 한다." 겉으로 보면 성도들을 위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예배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인도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인도가 아니라 진행일 뿐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씩 바꾸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 하던 예배를 '환영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찬양이 준비찬양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채 마음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찬양이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찬양이 준비찬양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준비찬양은 예배 시작 3분 전에 마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자인 제가 예배시작을 선언하고 환영과 교회소식을 전하면서,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간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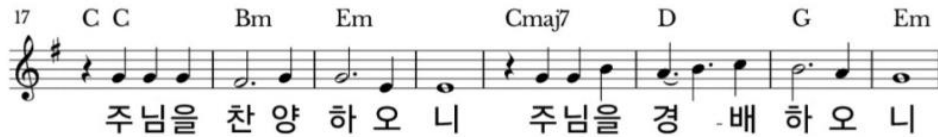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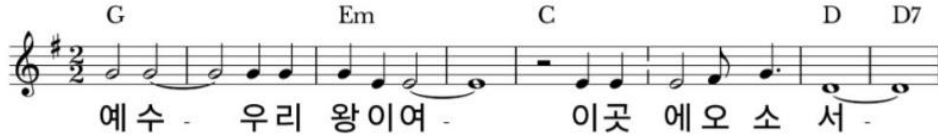
또한 봉헌과 합심기도·대표기도를 분리하고, 헌금 소개 방식도 변경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예배의 각 순서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순서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 목사도, 목자목녀도, 오래된 목원도, 처음 오신 VIP도 — 주일 아침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순서를 바꾸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저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서려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위에,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Words & Music by
전승연
랑이파파 채보



사도신경

인도자 : I.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인도자 : II.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인도자 : III.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통일 415)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

은혜와 사랑
F. R. Havergal, 1873
조금 빠르게

I could not do without Thee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요쁨과 안락을 전히 주시는 이시니라 (행 17:25)

ENDSLEIGH: 7&7&D.
S. Ferret(1817-1874)

1.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2.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3.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4.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그 힘 내 이 귀 없 영 조 한 고 의 은 보 부 직 고 배 죽 은 독 피 하 간 속 로 며 구 에 내 구 해 음 생 속 하 없 소 끝 서 다 을 도

구 내 주 사 주 주 박 나 의 는 에 운 나 풍 의 의 의 랑 으 생 마 일 로 명 음 때 홀 또 뒤 날 리 나 알 아 지 췌 보 힘 주 주 혈 이 리 시 니

내 주 내 내 소 님 마 절 망 을 위 계 나 의 지 로 신 위 하 하 주 로 여 사 님 을 영 혜 온 힘 광 를 케 이 됩 언 하 됩 니 다 아 멘

축복의 사람

♩ = 70 작사/곡 설경옥

주 계 힘 을 얻 고 그 마 음 에 - 시 온 의 대 로 가 있 는 그 대 는 -

하 나 님 의 축 복 의 사 람 이 죠 주 님 그 대 를 너 무 기 뻔 하 시 죠 - 주 의

집 에 거 하 기 를 사 모 하 - 고 주 를 항 상 찬 송 하 는 그 대 는 -

하 나 님 의 축 복 의 사 람 이 죠 주 님 그 대 를 너 무 사 랑 하 시 죠 - 그 대

설 길 은 아 름 다 운 찬 송 그 대 헌 신 은 항 기 로 운 기 도 그 대

가 밍 는 땅 어 디 에 서 라 도 - 주 님 의 이 름 높 아 질 거 예 요

<http://cafe.daum.net/jlovesm>